

현재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일하고 직장인 입니다. 중국에 온지는 올해로 8년 되었네요. 초등학교 6학년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갈 때 까지 제가 중국을 섬길 소망을 가지게 될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어렸을 때 삼국지와 수호지를 읽으며 막연하게 중국을 동경해 봤고, 대학 다닐 때는 이공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교양 과목으로 중국어와 중국 역사와 문화 과목을 많이 수강했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 하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처음 중국에 와서 회사 신우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먼저 섬기시던 총무님이 곧 한국으로 복귀하게되어 신우회 총무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총무가 주로 하는 일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때 볼 영상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었는데, 주말에 회사에서 주중 신우회때 볼 영상을 미리 들어보다가 한참을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랜드 중국 사업부의 임원께서 상해 코스타에서 설교했던 말씀이었는데,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복음을 위해 "중국인들의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부분에서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중국을 섬기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하는지는 알수 없었고, 주재원 기간이 끝나서 한국으로 복귀를 해야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중국을 떠나고 싶지 않아 퇴사를 하고 다시 중국으로 올 결심을 하고 회사에 퇴사 의견을 전달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중국으로 주재원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 다시 나온지 두 달만에 목사님이 한국으로 추방당하시고, 다시 오실 목사님이 정해졌음에도 공안이 허락을 해주지 않아 교회는 목사님이 안계신 상태로 영상으로 예배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목사님께서 권면해주시고, 또 한달 정도 기도한 후에 확신을 가지게 되어 신학 공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학교를 찾아봤는데, 한국에는 마땅한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월드미션대학교를 알게 되었고, 이번 학기에 입학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한다는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신 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업을 마칠 때 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져 가길 소망합니다.